현불논단

사교육 광풍에 멍드는 사회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대통령 '킬러문항' 언급에 입시 혼란
사교육 입시 효과 없애는 정책 필요
4살부터 유명 수학학원 다니는 현실
특목고 의대 · 로스쿨 진학도 막아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출산율에 영향
학벌주의 · 대학 서열화에 입시 지옥
균등한 교육기회, 누구나 주어져야
연기법 되새겨 함께 지혜 모색하자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킬러문항(초고난이도 문제)을 배제하라. 킬러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지시해 입시 현장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평지풍파가 일었다. 킬러문항이 11월에 치르는 대학수능의 화두가 되었다.

수능시험 문제와 대학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수능 문제는 치밀한 상대평가의 구조를 지니며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다. 수학과 과학영역에서 초고난이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 수능의 목적에 부합하는 변별력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면도 있다. 쉽게 출제하면 한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킬러문항을 위해 학원에 가는 학생은 서울대나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는 1% 이내의 소수 학생으로 일반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극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킬러문항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으니 입시전문 학원으로 떠넘기게 되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 반수생과 삼수생을 양산하여 재도전시키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한다.

자유 자본주의 국가에서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금지할 수가 없다. 다만 정부가 학교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받아도 입시에 효과가 없도록 입시정책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 학교 내신 성적의 반영이 그 일환이다. 한때는 학교에서 인성교육(봉사활동)과 독서교육을 매우 강조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였다.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려면 강남학군이나 특목고(과고, 외고), 자율고, 수도권 명문학교에 진학하면 손해다. 그러나 이 제도도 학교 간의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대학입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비율을 최소화하여 무력화되고 있다.

수능문제에서 고난이도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면 강남학생과 특목고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많이 합격하게 된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이나 지방학교 학생들은 경쟁에서 열세다. 특목고는 학교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학 입시를 동일 계열로 진학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의과대학과 로스쿨을 진학하는 입시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문대학교와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진학해야 하고, 또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선행학습을 받아야 하고, 급기야 4세 아이가 5세에 입학할 수 있는 대치동 유명 수학학원 준비를 '닥수(닥치고 수학)'을 하고 있다. 5세 영재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당 수준의 영어 학습을 시키는 현실이다. 무한경쟁의 악순환이다.

계급 상승을 위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에 대한 욕망과 경쟁심을 부추기는 학원가의 과장 광고에 의한 사교육 열풍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학벌주의 문화와 대학의 서열화, 특목고의 존치는 입시지옥을 만든다.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소외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린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만큼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교육부가 학원법이나 어린이보호법을 제정하여 사교육의 광풍을 진정시켜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연기적 존재로서 함께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공업 공동체라고 하였다.

가난한 이웃이 슬프고 힘들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성장을 멈추고 만다. 지나친 경쟁과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마음을 모아 지혜를 찾아보자.

社說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에 부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취임법회가 7월 12일 양주 청련사에서 봉행됐다. 지난 6월 27일 총무원장 공식 임기를 시작한 상진 스님은 이날 법회를 통해 공식 취임을 대내외에 알렸다.

상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태고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승하고 종단의 위상과 가치를 확립할 것을 취임 일성으로 내놨다. 또한 선거 공약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 △지방교구 자율 운영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재정 확립 등을 이행해 태고종 중흥의 기틀을 다질 것도 약속했다.

이 같은 취임사에는 태고종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 종단이자 대승교화종단으로 태고종을 발전시키겠다는 스님의 의지가 담겼다.

전국 3400여 사찰과 25개 교구, 5대 본사로 이뤄진 태고종은 종단 규모 면에서 대한불교조계종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에 해당한다. 하지만 잇단 내부 갈등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 서열 5위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상진 스님은 취임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외연 확대를 통한 종단 위상 회복"을 강조했다.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 임명된 부장단들에게 종단 대사회 사업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을 강조한 것도 종단 위상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진 스님의 취임법회에는 내외빈 포함 2000여 명이 운집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종문에 들어온 이래 한자리에 종도들이 이 같이 모인 것은 처음이고 여기서 종단의 저력을 봤다"고 했다. 상진 스님의 종단 운영 기조는 '공심(公心)'이다. 종단 발전은 총무원장 혼자만의 원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종도들의 동참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대승교화종단으로서 태고종의 발전을 기대한다.

영국사지, 불교-유교 상생활용 기대한다

2012년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현장. 조선시대 서원터였던 곳에서 불교 관련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이를 통해 해당 구역이 영국사의 옛 터임이 확인됐다.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7년 해당 사역에 대해 추가 발굴을 실시해 '견주도봉산영국사(見州道峯山寧國寺)'의 명문이 기록된 고려 초기 고승 혜거 국사(899~974)의 비석 파편을 발견하였고, 이에 도봉서원이 고려 영국사터에 건립된 사실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됐다.

본래 도봉서원의 복원을 진행하려 했던 만큼 유교 측과 불교계의 복원과 활용에 대한 입장 차는 크게 엇갈렸다. 입장 차는 지난 11년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10일 도봉구청을 방문해 오언석 구청장과의 논의 중 "불교의 역사와 유교의 역사가 서로 상생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한다. 영국사지가 불교와 유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영국사지(도봉서원)의 복원 및 활용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기실 조선시대를 숭유억불의 시대, 불교의 암흑기라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찌 역사를 분절시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인간에게는 변화하는 것과 지속되는 것이 섞여 있는 일상이 존재한다"고 했다. 변화와 지속, 두 구조로 역사를 이해한다면 조선시대에도 지속되는 신앙과 심성으로서의 불교와 변화된 통치 이념으로 유교가 상존했을 것이다. 수 차례의 발굴을 통해 영국사와 도봉서원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제 불교와 유교가 상생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⑯ 송기원 작가의 '명상소설'들

'명상소설'이라는 피서

여주에 가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스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스님의 우란분재에 저는 어머님의 천도를 맡겼습니다.
스님의 염불에 따라 어머님의 신위가 연기로 사라질 때, 그 연기에 취해 배롱나무 붉은 꽃잎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랑이여, 저의 마음속 붉은 꽃잎은 언제 어디서 무슨 연기에 취해 떨렸을까요.

송기원의 '붉은 꽃잎' 전문이다. 필자의 졸작 〈염주〉에 인용했던 시편이기도 하다. 작가의 어머니가 작가의 투옥 기간 중 자살한 사실로 비춰봤을 때 이 시는 실제 벌어진 일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유추된다.

송기원 작가는 〈안으로의 여행〉, 〈또 하나의 나〉, 〈숨〉 등 자전적 구도 여정이 돋보이는 명상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송기원의 명상소설들은 마음의 감옥 속에 갇힌 자아를 방생(放生)하고자 어딘가로 떠나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화자의 발걸음은 인도 구석구석을 헤매지만 그가 정작 닿고자 하는 종착지는 마음이다. 〈안으로의 여행〉은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 화자가 본래면목(本來面目)를 찾는 곳은 라다크 지방의 레라는 왕국으로 가는 길이다. 화자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유년을 본다.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에게마저 버림받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화자는 '일체개고(一切皆苦)'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송기원 문학의 화두가 '상처'나 '고통'인 까닭은 그의 불우했던 유년기 때문이다. 최근작인 〈숨〉은 화자가 미얀마 명상센터에 가서 남방불교의 전통 수행을 통해서 먼저 죽은 딸(후아)의 영혼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 속 화자는 "나에게 '몸의 서른 두 부분을 바라보는 명상'이란 결국 늙은 괴물이 웅크리고 있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바로 그 문을 지나쳐서 늙은 괴물을 만나야 진정으로 딸과 하나가 되고, 딸의 실존의 흔적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화자의 말마따나 기실 사람의 몸과 마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위빠사나의 가장 수승한 지혜일 것이다.

"자신이 순간마다 변하고, 그런 순간의 변화가 자신을 고통에 헤매게 하고, 그렇게 자신이 극미하게 분해되는 어지러움과 현기증밖에 아무것도 없는 과정자체가 바로 위빠사나의 지혜가 아니었으랴. 자신이 순간마다 변하는 과정이 바로 무상이고, 그런 순간의 변화에 어지러움과 현기증을 느끼는 과정이 고통이며, 그런 순간의 고통 속에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무아가 아니고 무엇이랴"라는 화자의 독백은 큰 울림을 준다.

무더운 여름이다. 명상을 통해서 더위를 잊거나 명상소설을 읽으면서 더위를 잊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